

보도자료



K I H A S 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<https://kihasa.re.kr>

보도내용	□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62호 발간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? -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		
상세문의	사회보장정책연구실	고혜진 부연구위원	☎044-287-8261
	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	권성희 전문원	☎044-287-8261
배포부서	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	이혜선	☎044-287-8345
	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	정지혜 행정원	☎044-287-8015
분량	총 3매(그림 1종 포함)		
배포일시	2026년 3월 19일(목)		
보도일시	즉시		

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?

- 자산보유 여부와 보유 규모가 불평등을 느끼는 주된 요인...순자산이 많을수록 불평등이나 소득 격차 덜 느껴
-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 불평등 개선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여
- 저소득층에서는 소득 수준보다 생활비 부담이 분배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
- 분배 인식을 개선하려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축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필요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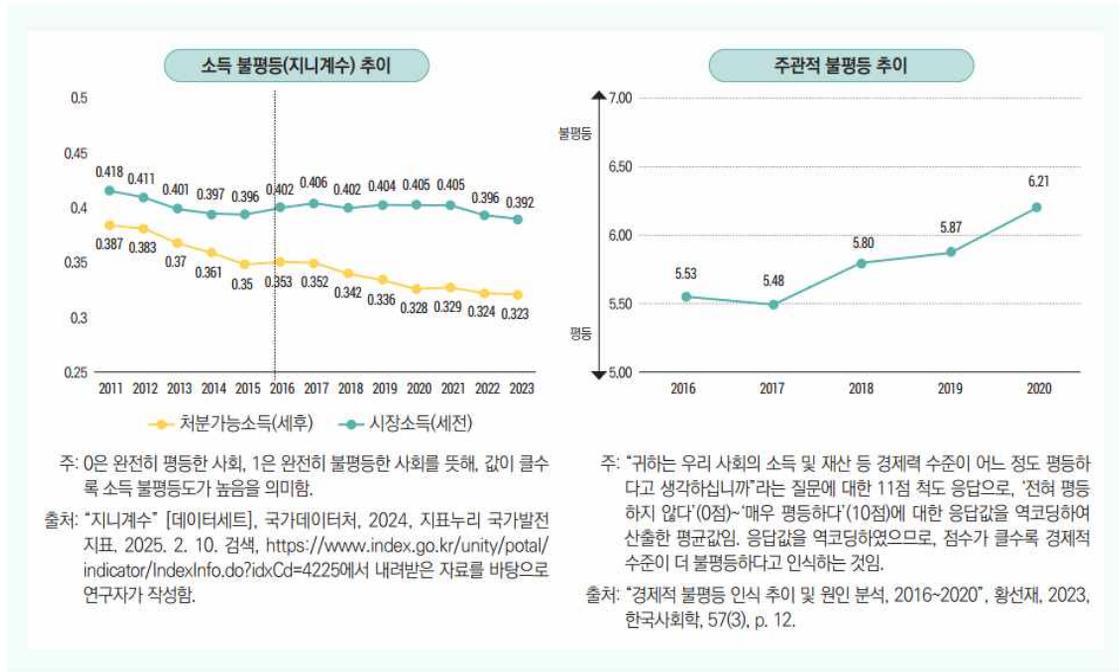
※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,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.

□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)은 『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』 제462호 『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? -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』을 발간했다.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고혜진 부연구위원이다.

□ 최근 10여 년간 공적이전소득 확대 등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.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고혜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 “주관적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했다.”고 했다.

[그림 1] 실질 소득 분배와 주관적 불평등의 추이



□ 연구 결과,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.

-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.
-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소득 수준 자체보다 생활비 부담이 분배 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.
- 또한 순자산이 많을수록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.

□ 고 부연구위원은 “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해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.”고 말했다.

- 그는 저소득·저자산 집단의 경우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의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. 또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출 보전 이용권(바우처) 지원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의 확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 아울러 중간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,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.

※ 이슈엔포커스 제462호 원문 보기

<https://repository.kihasa.re.kr/handle/201002/49318>